

‘펀드 이동제’ 시행 한달, 증권가에선...

‘고객불잡기’ 서비스 경쟁

리콜제·환매대금 조기 지급·수수료 인하 나서

도입 한달째를 맞은 ‘펀드 이동제’가 증권가 고객 서비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자 증권가에서 펀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펀드 리콜제’를 도입한 데 이어 펀드 환매대금 조기 지급 등 고객 지향형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증권가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이달 초 불완전 판매 펀드에 대해 상시 리콜을 실시하는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2월 중 판매한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가 일어난 경우, 이를 즉시 고객에게 알려 매수 신청 후 휴일 포함 15일 이내에 ‘펀드 리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리콜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세금만 제외한 투자 원금과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불완전 펀드 판매는 투자자확인서

점부 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와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IBK투자증권도 오는 4월 1일부터 펀드 환매대금을 환매 신청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는 환매대금 조기지급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환매 신청 3일 후 출금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IBK투자증권은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거나, 옮겨온 고객에게는 무상으로 코스피200펀드 ELW(주식위험도 증권)를 제공하는 ‘펀드 백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상품은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이 나는 상품을 부가적으로 얹어줌으로써 주가 하락시 고객의 손실을 줄여 주는 상품이다.

판매사들도 잇따라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피델리티

코리아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 펀드 판매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로 내렸다. 피델리티의 같은 펀드에 대해 이트레이드증권은 1%를 받던 펀드 판매 수수료를 0.8%만 받고 있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53개 펀드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제로로 낮춘 바 있는 키움증권도 최근 미래에셋캐스의 러시아와 브라질, 브릭스, 중국 등 해외 펀드와 국내 주식형 펀드, MMF 등의 선취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21일 증권업계와 여탁결제원 등을 따르면 펀드판매회사 이동제가 시행된 이후로 지난 19일까지 4주간 판매사를 이동한 펀드는 총 1천3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판매사 이동건수는 총 5천 426건으로 하루 평균 286건을 기록했다. 지난주에는 사흘 연속 400건을 웃돌았고 지난 19일에는 최대 건수인 462건이 이동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리보는 올 상반기 패션 트렌드를 담은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25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고객사랑 80년, 광주시랑 15년 광주신세계 2010 Spring/Summer Fashion Show’. 모델들이 올 상반기 패션 트렌드를 담은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SKT 내달부터 ‘휴대전화 요금 1초단위 부과’

시민단체 “KT·LGT도 도입하라”

이동통신 음성요금을 1초 단위로 부과하는 초당 과금제가 이동통신사 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SK텔레콤이 국내 통신사중 최초로 다음달 1일부터 초당 과금제를 도입키로 했지만 다른 이동통신사의 경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나머지 이동통신사에 초단위 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벌여오

금 전산체계 개편을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초당 과금제를 적용한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고객들은 이동전화 사용시 10초당 18원이 아닌 1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받게 된다. 매달 통화료를 700~800원 정도 덜 내게 돼 매년 1인당 9천원 가량 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발표에 시민단체들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부담하도록 과금체계를 개선하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초당 과금제가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방통위는 3월 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야 하며 KT와 LG텔레콤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이마트 17개 품목 최대 64% 인하

이마트는 25일부터 활국어, 양파, 국물용 멸치, 옥시 파워크린 등 17개 품목을 전일 대비 최대 63.6%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가격인하는 올 초 ‘신 가격정책’을 선언한 이후 이번 가격 인하에서 제주 바다목장 활국어의 경우, 이마트가 2002년 이

마트 지정 바다목장 운영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인 1만5천800원(1kg 이상)으로 기존 가격보다 45.1% 내렸다.

이외에도 국내산 양과(2kg/망)는 1천800원(32.1% ↓), 국내산 양배추(1통)는 600원(63.6% ↓), 동원 F&B 리플(340g* 3)은 8천980원(30.4%

↓), 옥시 파워크린(7kg)은 8천900원(63.5% ↓) 등으로 가격을 내렸다.

한편, 광주신세계 이마트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소재 이마트(동광주점 제외)는 27일부터 ‘테일러메이드 R5 XL’ 남성용 7번 아이언을 9천900원에 판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품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4만~5만원에,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만원대 초반에 팔리고 있는 것에 견주면 60~80% 할인된 가격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시아나 4년연속 ‘5성 항공사’ 선정

아시아나항공이 세계적 항공산업 전문리서치 기관인 영국 스카이트랙스로부터 4년 연속으로 최고 항공사로 인정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5일 강서구 본사에서 에드워드 플레이스테드 스카이트랙스 회장으로부터 ‘5성 항공사’ 인증서를 받았다. 2007년 이후 4번째다.

현재 스카이트랙스의 ‘5성 항공사’는 아시아나와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카타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킴리서 항공 등 전 세계에서 6곳뿐이다.

11년째를 맞이한 스카이트랙스의 항공사 순위 평가는 매년 전 세계 22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을 심사해 별 1개부터 5개까지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재래시장 대보름 비용

대형마트보다 40% 싸

대보름 밤상을 재래시장을 이용해 준비하면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에 비해 40% 정도 싸게 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 자문해 대보름에 쓰이는 부럼과 오곡밥, 나물류 17개 품목으로 4인 가족 기준 대보름상을 구성해 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참쌀, 검은콩, 차수수, 붉은팥, 차조 등 오곡밥과 고사리, 도라지, 무나물, 취나물, 시래기나물, 호박오가리 등의 나물, 호두, 팥콩, 밤 등 부럼을 상에 올릴 경우 재래시장에서 이를 준비하면 1만5천809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면 2만7천687원이 소요돼 재래시장이 42.9% 더 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소비심리 냉각 조짐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냉각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금융시장이 악화조짐을 보이는 데다 유가 등 물가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1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 120으로 정

점을 찍은 뒤 11월 118로 내려앉아 12월 115, 1월 112로 넉달째 하락세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 100을 웃돌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사람이 더 많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뜻이다.

현재 경기를 보는 눈은 더 나쁘다. 경기관단 심리지수는 94로 전달에 비해 5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 1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온 뒤 두달째

내리세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94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하며 석달 연속 기준치 아래를 밑돌고 있다. 향후 경기전망지수도 105로 8포인트 빠졌다.

그러나 가계수입전망 지수는 전달 102에서 103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지출전망 지수도 106에서 108로 2포인트 올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송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아자없는 트라이슈머 시트방수!

트라이슈머 시트방수로 완벽한 단열효과까지!!

이마트에서 구매 가능

문의: (052) 1511-0444

제주약영투어와 함께 즐기는 한라산 등반/육대길/갯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

문의: (061) 727-2277